

# 종족집단의 거주지 이동과 종족촌락의 기원에 관한 연구

-14~19세기 보성오씨(寶城吳氏)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진 종 한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1. 서 론

14~19세기를 거치면서 중법사상의 보급, 동성동본의식의 강화, 부계혈통 중심의 친족의식, 장자우대 관행, 족보간행 등과 더불어 한국의 종족집단(宗族集團)<sup>1)</sup>은 사회적 구성에서 중요한 단위로 부각되었다. 종족집단이 갖는 당대의 이 같은 사회적 단위성은 시·공간상에 다양한 패턴과 경관으로 표출되었는데, 그 중에서 지리학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현상이 '거주지 이동'과 '종족촌락(宗族村落)의 기원'이다. 거주지 이동과 종족촌락의 기원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지리적 연쇄 속에 존재하면서 맥락적으로 긴밀한 관련을 가진 공간 현상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탐구 주제로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간 한국의 종족집단에 관해서는 주로 '가족과 친족의 연구'라는 범주 속에서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왔으며 학사적으로 매우 오랜 연구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기에는 가장 활발했던 연구 주제에 해당했지만, 소수의 정력적인 연구자들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며 최근에는 매우 침체된 상태에 있다(김필동, 1990: 27; 김일철 외, 1998, 31). 특히 한국의 경우, 이들 분야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종족집단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고, 공간적 관점(空間的觀點)의 수용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스케일에 있어서는 전체 사회구조 내지 사회적 변동과의 관련성을 지향하였으며, 미시적 스케일에서 질적 분석을 통한 '현상 그 자체의 해석'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한편, 1950, 60년대 아날 학자들에 의해 '가족사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역사지리학, 경제사, 역사인문학 분야가 개척되었는데(정진성, 1990: 71), 서양의 경우 지리학에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 때로부터 비롯한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및 영국의 사회학, 역사학, 지리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주제와 관련하여 '공간과 사회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왔고, 그것은 현대 사회이론과 역사철학에까지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전종한, 1999: 174-176). 이러한 국내의 학사적 흐름과 연구 동향을 조망하여 볼 때, 한국의 경우 종족집단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의 하나는 공간적 관점의 활용과 관련되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 질적 분석에 있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하여 시야를 문화지리학 및 역사지리학으로 옮겨 올 때, 공간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주제로서 '종족집단의 거주지 이동과 종족촌락의 기원'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글에서 그 일면을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보성오씨(寶城吳氏)를 사례로 삼아, 이미 구상한 복원방법론(전종한, 2001b)을 활용하여 종족집단의 거주지 이동 패턴을 복원(reconstruction)하고, 패턴 이면(裏面)에 존재하는 이주과정을 재연(representation)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거주지 이동 패턴을 복원(復元)하기 위해 활용된 기본 자료는 족보상의 거주지 및 묘소 위치 기록이었는데, 특정 지역에 묘소가 3대 이상 지속적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 그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주과정을 재연(再演)함에 있어서는 족보 외에 행장, 문집, 문인록 등의 사찬사료를 분석하되, 현달한 정치사회적 인물의 경우는 왕조실록과 사마방목(司馬榜目)의

1) 본관(本貫)과 성씨(姓氏)를 준거로 구분되는 한국의 혈연집단을 어떤 용어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씨집단, 동족집단, 동성집단, 씨족집단, 종족집단 등 학자나 분야마다 의견이 다양하다. 이 다양성은 연구의 주안점이나 목표, 연구의 대상 시기, 연구자의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어떤 특정한 용어의 보편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중법사상의 보급에 따라 한국의 경우 14세기 이래 장자우대관행이 강화되었고, 친족의식이 양계(兩系)로부터 부계출계 중심으로 변모했다는 점, 그리고 조선시대 각 종족집단들은 자칭하여 대부분 '종족(宗族)'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필자는 이 글에서 성씨집단을 종족집단(lineage group)이라 명명하고, 아울러 그들의 주도하에 형성된 촌락을 종족촌락(宗族村落)이라 이름하고자 한다.

기록을 참고하였다. 여기서 보성오씨 종족집단이 분석 대상으로서 갖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본관(本貫)과 종파(宗派)의 근거지가 분화되었기 때문에 본관 이탈과 거주지 이동, 종족촌락의 관계를 검토하기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 둘째, 14세기이래 정치사회적으로 현달한 인물이 다수 배출되어 사찬 기록이 풍부하고 관찬 사료에도 등재되어 있는 등 증빙 자료의 신빙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종토(宗土) 및 종족경관(宗族景觀)이 잘 보존되어 있어 현지 답사를 통한 확인과 면담을 통해 연구 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

필자는 보성오씨 종족집단의 본관 정착 및 이탈, 거주지 이동과정을 통시적으로 복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확인되는 다양한 이주사례들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추출하되, 이주 배경과 이주거리의 관련성, 시기별 주요 정치사회적 변동과 이주 빈도의 관계, 그리고 거주지 위치가 갖는 지정학적 차원으로 각각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물론, 이 특성들이 보성오씨 하나의 사례 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주과정을 이주 주체의 입장에서 복원하고 각 이주 사례에 대해 미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주 주체가 당면했던 이주의 배경, 이주시 어떤 공간을 선택하였는가 하는 장소관, 하나의 종족집단 전체에서 전개된 이주의 통시적 과정 등에 구체적,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14~19세기 종족집단의 이주행위를 유발하는 다양한 맥락과 상황들을 포착할 것이며, 이 점에서 기존의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연구 성과들을 보완함과 동시에 후속적 연구들에 갖는 함의를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본 고에서는 종족촌락(宗族村落)의 기원이 갖는 의미에 관심을 갖는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 종족촌락은 종법사상의 보급과 이로 인한 종족의식의 확산과정에서 발생한 지리적 현상으로서 일반화되고 있다. 발생 시기에 관해서는 대체로 양란이후, 즉 17세기 중엽 이후에 그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종법사상과 관련지어 종족촌락의 내부 구조에 관해 비교적 많은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종족촌락을 선정한 후 그 정착과정 및 공간구조 같은 내적 측면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당연히 종족촌락의 발생 배경 및 맥락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필자는 기존 연구들에서 비교적 부족했던 부분, 즉 종족촌락의 기원이 갖는 맥락 내지 종족촌락 발생의 외적 배경을 탐색하려고 한다. 특히, 종족촌락은 이주 현상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성오씨의 이주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는 종족촌락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자연스럽게 연결, 적용될 수 있으며, 조선시기 인구이주사나 촌락사회사, 지역사회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 2. 본관 이탈과 거주지 이동과정

(서술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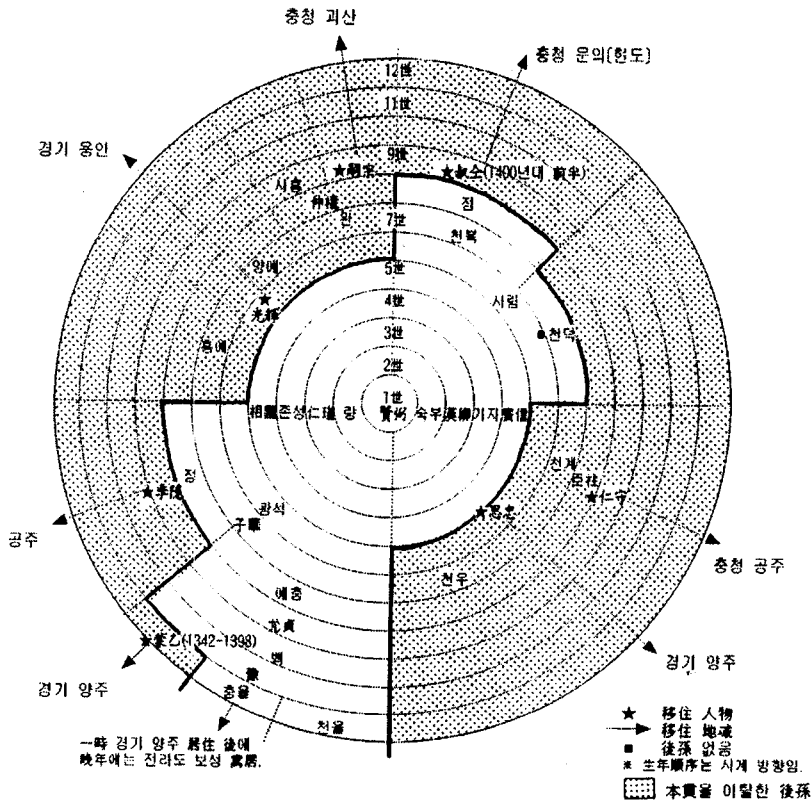


그림 1. 보성오씨의 본관 잔류 후손과 이탈 인물

\* 이 그림에서 동심원은 시조(始祖) 이래의 각 세대(世代)를 의미한다. 가장 안쪽의 동심원에 보성오씨 시조인 오현필(吳賢弼)이 위치하고, 그 외곽의 동심원에 차례로 2세로부터 12세까지의 후손 이름과 거주지 이동 사항을 표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흰색 부분은 본관인 보성 지방에 잔류한 후손들이 누구였는가를 보여주며, 점 패턴으로 표시된 부분은 보성을 이탈하여 타지방으로 이주한 경우 및 후손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타지방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이주 인물 및 지역명을 동심원의 바깥쪽에 표기하였다. 대체로 보아, 5~9세 후손들[시기상으로는 대체로 14세기 후반에 해당함]에게서 본관 이탈 빈도가 높으며, 12세 후손의 시점에서 볼 때 보성에 잔류한 자손은 11세 예(豫)의 장남 및 차남의 후손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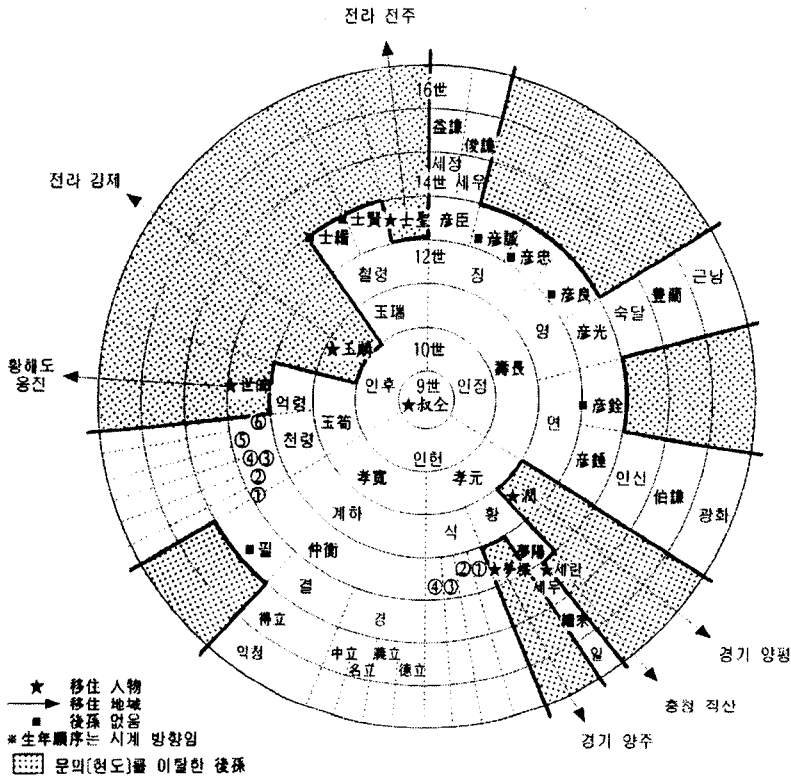


그림 2. 문의현[현도] 보성오씨(寶城吳氏)의 잔류 후손과 이탈 인물

\* 이 그림은 문의[현재의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에 정착한 보성오씨 9세 오숙동(吳叔守)으로부터 그 후손들의 거주지 이동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16세 후손을 기준으로 볼 때, 당시 문의에 잔류한 후손들이 비교적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본관인 전라도 보성의 그것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그림 1>과 비교). 한편, 문의 지방을 이탈한 경우는 대체로 12~14세 후손들임을 알 수 있는데, 시기 상으로는 대체로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기에 해당한다. 특히 이 시기 이후에는 후손이 없는 인물도 다수 관찰되는데, 아마도 전란으로 인한 사상(死傷)에 기인하는 것이라 추측된다.

### 3. 요약 및 결론

본관은 한국 종족집단의 실제적 혹은 상징적 기원에 해당하지만, 종족집단은 결코 본관 '내에서' 정체(停滯)하지 않았다. 그들은 본관 '으로부터 벗어나' 끊임없이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14~19세기 동안 종족집단이 갖는 공간적 행위주체 내지 지리적 사회집단으로서의 모습은 그들의 거주지 이동패턴을 복원하고 그 배경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될 수 있다. 또한 이주과정에서 종족촌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주지 이동과 종족촌락의 기원의 문제는 서로 분리해서 이해될 수 없는 주제라는 점이 필자의 중요한 문제의식이었다.

이 같은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보성오씨(寶城吳氏)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보성오씨 종족집단은 15세기초부터 본관과 종파의 근거지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거주지 확산의 문제를 본관 잔류와 거주지 확산과정을 고찰하기에 효과적이었고, 특히 대종손의 자손인 종파(宗派)의 근거지가 본관인 전라도 보성으로부터 벗어나 충청도 청원군 현도 지방에 새롭게 마련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종족촌락의 기원에 대한 검토 문제를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보성오씨는 13세기에 시조 오현필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보성군(寶城君)의 작위를 받아 전라도 보성에 토지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개정에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왕조의 멸망으로 인해 14세기 후반에는 12세 천을, 충을 형제를 비롯한 후손들이 본관지로 낙향하였으며 이 때부터 보성 일대에 본격적으로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들이 남아 있다. 한편, 대종손인 9세 숙동은 15세기초에 통혼관계를 배경으로 난리를 피해 충청도 청원군 현도 지방에 정착하게 되며, 사회적 관계의 확장파와 정치적 진출을 통해 16세기 이후 이 일대를 보성오씨 종족집단의 새로운 근거지로 만들어가게 된다.

둘째, 상기와 같은 보성오씨 이주패턴의 복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밝혀졌다. 먼저 이주배경과 이주거리의 관계에 있어 정치적 지위가 낮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안정기일수록 기존 거주지로부터의 단거리 이주가 우세하였다. 정치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특정한 한 장소를 중심으로 경제력을 축적함으로써 'local'단위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이를 기원지로 하여 인구 팽창에 따른 근거리 이주를 결행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 진출과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배경으로 장거리 이주를 보이는 빈도 또한 높다. 이 점에서 14~19세기의 정치적 지위는 고도의 공간적, 사회적 이동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 일반적으로 17-18세기의 인구 이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연구 결과 왕조변천기인 14세기말의 이주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7세기 이후 전란기나 인구 증가로 인한 개별적 이주와 달리, 14세기말 주요 인물들의 거주지 이동은 결과적으로 해당 종족집단의 근거지 재편성과 관련된다라는 점이 중요했다. 끝으로, 이주지의 위치가 갖는 지형학적 차원의 면에서 볼 때, '정치적 현달→한양 인근에의 거주지 확보→장거리 이주'가 하나의 사이클 안에서 순환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상기 결과들은 보성오씨의 경우 이외에도 광산김씨, 회덕황씨, 은진송씨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이 글에서는 종족촌락의 기원을 검토함에 있어서 입향조의 정착 시기와 배경을 살펴보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했다. 입향조라는 인물은 종족촌락의 정신적 기원이며 그의 정착장소는 종족촌락의 장소적 기원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회덕황씨의 종족촌락의 경우, 입향조의 정착 시기가 16세기 이전인 경우가 총 7건중 5건에 해당했으며, 그 배경은 통혼관계와 정치적 피화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학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17세기 이후에도 종족촌락의 형성 기원이 다수 관찰되었다. 그러나 형성 배경은 16세기 이전의 경우와 달리 전란으로 인한 이주와 새로운 정착지의 장소화과정에서 종족촌락이 다수 나타났으며, 그 위치는 기존의 근거지로부터 원격지에 나타나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입지한 경우가 보다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격지 종족촌락의 경우는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적응 전략으로서 일종의 인플레이브로 이해되었으며, 근거리에 입지하는 경우는 정치적 현달과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배경으로 하여 장소화를 통한 일종의 영역성 확대 현상이라 해석하였다.

상기 내용들은 보성오씨와 기타 일부 종족집단의 사례 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주과정을 이주 주체의 입장에서 복원하고 각각의 이주 사례에 대해 미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주 주체가 당면했던 이주의 주요 배경, 이주시 어떤 공간을 선택하였는가 하는 장소관, 하나의 종족집단 전체에서 전개된 이주의 통시적 과정 등에 구체적,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족촌락의 형성 기원 및 배경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례 연구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종족촌락의 형성 기원을 16세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검토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나의 종족집단 내에서도 거주지 이동의 시·공간 패턴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였는데, 이는 거주지 이동이 매우 상황의존적이고 우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점과도 관련되는 것이라 본다. 이런 면에서, 거주지 이동에 관한 한, 일반화나 유형화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적 한정성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이주 주체의 사회·정치·경제적 지위, 그들을 둘러싼 많은 사실들과 복잡한 배경 등에 파악 작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문헌/족보류: 『國朝人物考』, 『寶城吳氏世譜』, 『寶城吳氏發津丹川派族譜』, 『司馬榜目』,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CD-rom, 『忠淸道邑誌』.
- 김덕현(1983), “씨족촌락의 형성과정과 입지 및 유교문화경관-안동지방의 사족촌락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제10호, pp.241-251.
- 류제현(1994), 「한국 문화·역사지리학 50년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제31권 제2호, pp.255-267.
- 양보경(1980), 「반월면 4리 동족부락에 대한 연구」, 『지리학논총』 제7호, pp.29-52.
- 옥한석(1986), 「영서태백산지에 있어서 씨족의 이동과 촌락의 형성에 관한 연구」, 『지리학』 제34호, pp.30-46.
- 이문종(1988),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지리학논총』 별호 6).
- 이찬(1983), 「문화·역사지리학의 연구 동향과 제문제」, 『지리학논총』 제10호, pp.41-53.
- 이해준(1996), 『조선시대 촌락사회사』, 서울: 민족문화사.
- 임병조(2000), 「조선시대 관료층의 내포지방 정착과정」, 『문화역사지리』 제12권 제2호, pp.73-96.
- 전중환(2001), 「종족집단 거주지 이동 패턴의 복원방법론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13권 제2호, pp.119-142.
- 전중환(2002a), 「종족집단의 거주지 이동과 지역화과정」,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중환(2002b), 「종족집단의 거주지 이동과 종족촌락의 기원에 관한 연구」, 『사회와역사』(한국사회사학회지) 제61집, 서울: 문학과지성사, pp.87-124.
- 정진성(1990), 「서구 가족사 연구의 부흥 - 아날 학파와 케임브리지 그룹을 중심으로 -」, 『사회사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24집, 서울: 문학과지성사, pp.71-101.
- 최기엽(1986), 「한국 촌락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지리학연구보고』 제14호).
- 善生永助(1935), 『朝鮮の聚落(後)』, 朝鮮總督府.
- 善生永助(1943), 『朝鮮の姓氏と同族部落』, 朝鮮總督府.
- 川島藤也(1974), 「文化柳氏にみられる氏族の移動とその性格」, 『朝鮮學報』第70輯, pp.47- 48.
- 徐揚杰(1992), 윤재석 옮김, 『중국가족제도사』, 서울: 아카넷.
- Freedman, M.(1957), 김광억 옮김, 『동남부 중국의 종족조직』, 서울: 대광출판사.
- Halfacree, K., and Bycle, P.(1993), "The challenge facing migration research: the case for a biographical approach,"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7, pp.333-348.
- Mchugh, K.E.(2000), "Inside, outside, upside down, backward, forward, round and round: a case for ethnographic studies in migr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1, pp 71-89.